

서비스업생산 감소폭 확대...소매판매 회복세

2020년 2분기 시·도 동향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줄면서 광주·전남 2분기(4~6월) 서비스업 생산이 전분기보다 감소 폭을 키웠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지급 영향을 받은 2분기에는 전남 소매판매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6일 통계청의 '2020년 2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2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광주 1.7%, 전남은 1.6% 감소했다.

2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 1분기(광주 -0.4%·전남 0.1%)에 비해 감소 폭을 키웠다. 직전 분기인 1분기에 비해서는 광주 0.9%, 전남 1.6%의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전남 서비스업 생산 전년비 각 1.7%·1.6% 감소

전남 소매판매 전년비 10.2% 증가...전국 유일 두자릿수

광주지역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18.7%)업종과 숙박·음식점(-12.2%), 예술·스포츠·여가(-32.4%), 교육(-8.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9.4%) 등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금융·보험(12.7%), 부동산(12.9%), 보건·사회복지(1.6%)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 서비스업도 운수·창고(-17.2%)와 숙박·음식점(-9.6%), 예술·스포츠·여가(-15.5%), 교육(-2.7%) 업종 등의 생산이 줄었다. 금융·보험(12.1%), 부동산

(15.6%), 보건·사회복지(3.2%) 업종은 생산이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광주·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타격이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남 감소율(-9.6%)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광주지역은 전남, 경기(-10.2%)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예술·스포츠·여가 생산 감소율도 전남은 가장 낮았고, 광주는 중위권(9번째)에 들었다.

전남과 광주 서비스업 생산 감소율은 서울(-0.6%), 전북(-0.7%)에 이어 16개 시·도 중 3~4번째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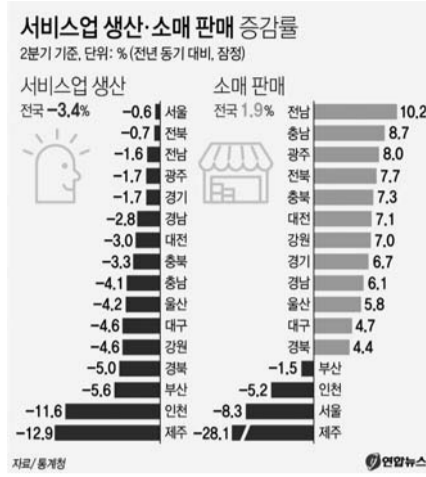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비롯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제주 서비스업 생산은 12.9% 감소하는 등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 16개 시·도 모두 감소했다.

한편 광주지역 소매판매는 지난 2분기 5분기 연속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을 끊고 오름세로 돌아섰다.

2분기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광주는 8%, 전남은 10.2% 증가했다.

특히 전남은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남에 이어 충남(8.7%), 광주, 전북(7.7%), 충북(7.3%), 대전(7.1%), 강원(7%) 순으로



늘었다. 제주(-28.1%), 서울(-8.3%), 인천(-5.2%), 부산(-1.5%) 등 4개 지역은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동반 감소했다.

광주지역 전문소매점(-0.5%)과 대형마트(-2.2%) 판매는 감소한 반면 백화점(8%), 승용차·연료소매점(25.7%), 슈퍼·잡화·편의점(7.6%) 등은 증가했다.

전남은 승용차·연료소매점(15.9%), 슈퍼·잡화·편의점(14.8%), 전문소매점(3.9%) 등 대부분 판매가 올랐다.

양동희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2분기에는 개별개소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 판매 증가, 재난지원금 지급의 영향으로 소매판매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면서 "편의점과 백화점 비중이 높은 제주, 서울, 인천, 부산 4곳만 소매판매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42.61 (+30.75) ↑ 금리(국고채 3년) 0.807 (+0.012)
 ↑ 코스닥 854.12 (+6.84) ↓ 환율(USD) 1183.50 (-5.30)

광주·전남 상장사 시총 소폭 감소

7월 18조7719억...전월비 1114억 줄어

7월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8% 증가한 반면 광주·전남지역 상장사 시총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시총은 18조 7719억원으로, 전월보다 0.59%(-1114억원) 감소했다.

전체시장 시총은 주가 상승에 따라 8.18%(138조2465억원) 증가한 1828조935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의 경우 한국전력이 2567억원(-2.05%) 감소했고, 금호에이치티 597억원(-48.13%) 등의 감소 폭이 컸다.

부국철강은 318억원(35.81%), 보해양조는 166억원(17.7%) 증가했다.

전달에 비해 코스닥 시총은 1663억원(7.28%) 증가한 가운데, 오이솔루션은 1339억원(26.7%), 와이엔텍 246억원(12.16%), 정다운 213억원(44.83%), KPX생명과학 190억원(22.84%) 등 시총이 올랐다.

반면 남화토건은 188억원(-9.55%), 남화산업 103억원(-3.62%), 피피아이 106억원(-11.23%) 시총이 줄며 약세를 보였다.

광주·전남지역의 주주 거래량은 전달보다 2.52%(-4229만주) 감소했지만 거래대금은 9071억원 늘며 5.5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역 투자자 거래량 비중은 2.85%로 전달보다 0.13%포인트 증가했고, 거래대금 비중도 0.22%포인트 늘었다.

전체시장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주가 상승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퍼지면서 각각 6.66%, 2.26% 감소했다.

지역 투자자들의 코스피 거래 상위 종목은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와 바이오제약업종 대표 종목인 셀트리온, 코로나19 관련 신종제약, 비데면(엔텍) 관련 기업(키카오) 등이었다.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코스닥에서 지역투자자들은 전체 동향과 같이 쪼뻛,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코로나19 관련 바이오기업에 집중해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반면 남화토건은 188억원(-9.55%), 남화산업 103억원(-3.62%), 피피아이 106억원(-11.23%) 시총이 줄며 약세를 보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오픈뱅킹 333'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오픈뱅킹 333' 행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최초 가입 후 다른 은행 계좌에서 광주은행 본인 계좌로 이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7주간 매주 333명씩, 총 2331명에게 GS25편의점 모바일상품권(3000원)을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는 광주은행 오픈뱅킹 가입 시 문자 및 휴대폰 마케팅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경품 지급은 매주 화요일을 기준으로

전주(월·일요일) 동안 이벤트 지급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추첨한 후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한다.

광주은행 홈페이지(kjbank.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정민 디지털사업부장은 "광주은행 앱 하나만으로 다른 은행 계좌의 금융거래까지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단순히 다른 은행 계좌 조회와 이체 수준을 넘어 오픈뱅킹에 특화된 서비스와 연계상품을 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품 지급은 매주 화요일을 기준으로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치맥 대신 '치와' 어때요 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고객들이 지하 1층 와인 매장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살펴보고 있다. 레드 와인 에 비해 알코올 도수가 낮은 스파클링 와인은 최근 치킨과 조합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나주혁신도시 채용 10명 중 2명 '지역인재'

한전 등 13곳 상반기 264명 중 48명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13곳이 올해 2분기 기준 신입사원 264명 가운데 18.2%에 달하는 48명을 지역인재로 채용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온'에 공시된 13개 혁신도시 기관의 올 2분기 기준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48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전력 등 13개 기관은 올 들어 2분기까지 264명을 채용한 것으로 공시했다.

상반기 채용을 진행한 기관·공기업 가운데 지역인재를 신입사원으로 뽑은 기관은 한전(35명), 한국농어촌공사(7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2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2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명), 한전KPS(1명) 등이었다.

한전은 전체 정규직 채용 180명 가운데 19.4%를 광주·전남 출신에 할당했다. 농

어촌공사는 40명 가운데 7명을 뽑아 비중이 17.5%로 나타났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50%), 문화예술위원회(18.2%), 농수산식품유통공사(14.3%) 등으로 비중이 높았다.

올 초 채용계획을 밝힌 혁신도시 13개 기관의 채용 예정 인원은 총 2281명이다.

지난해 혁신도시 17개 기관 채용계획 인원 1608.5명 가운데 24.6%에 달하는 395.5명이 지역출신인재로 채워졌다. 올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지난해보다 3%포인트 상향한 24%로 정했다.

한편 지난 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7년 6년 동안 나주 혁신도시에 창출된 일자리는 1만35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공대 부지 시추 착수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는 7일까지 나흘 동안 캠퍼스 건축을 위한 대학부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캠퍼스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 40만㎡ 부지에 조성된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대학부지 측량과 함께 시추기를 통한 지반조사, 지열시험을 위한 천공조사 등이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통해 건물들의 배치와 건물의 기초형태를 결정하고, 지열을 통한 친환경 냉난방 설비 구축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41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캠퍼스 설계용역(1단계)은 지난해 680억 대 매출을 올린 ㈜디에이그룹이 맡았다.

한전공대 측은 설계가 마무리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